

정치판의 모든 좌파는 강남 좌파?

'강남 좌파' 강준만 지음

우리 사회의 논쟁적 사안을 책으로 꾸준히 살펴온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강남 좌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들을 비평한 '강남 좌파-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를 출간했다.

2006년 이미 한 잡지를 통해 '강남 좌파'를 개념정리하고 이를 공론화시킨 강 교수는 "모든 정치인에게는 강남 좌파의 요소가 농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한다.

또한 "우파라도 서민을 상대로 포퓰리즘 자제를 취하는 게 '정치의 문법'이기 때문에, 우파 정치인에게도 강남 좌파의 요소가 농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한다.

책은 이전의 저작들이 그랬듯이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과 단순한 사회·인물 비평의 수준을 뛰어 넘는다.

강 교수는 강남 좌파의 실체와 논란을 정리하



고 성격과 주체의 위상, 실천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해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남 좌파는 성격에 따라 부자 좌파와 평민 좌파로 나뉘고 이를 다시 실천이 '경제형', 부자는 아니지만 라이프 스타일 등이 강남 성향을 드러내는 '문화형', 부자도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면서 최상급 학벌을 갖고 그 학벌이 제공하는 학연 등의 혜택을 누리는 '연고형'으로 분류된다.

또 주체의 위상이라는 관점에서 공적, 중간적, 사적 좌파 세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실천이라는 기준으로 이타적, 합리적, 기회주의적 좌파로 분류한다.

이러한 강남 좌파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 이른바 '분당 좌파'로 재기에 성공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부정적 의미의 강남 좌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박근혜 의원, "강남 우파이면서도 강남 좌파적 언어를 전복적으로 구성하는" 오세훈 서울 시장 등 정치권 안팎의 주요 인사를 강남 좌파의 프리즘으로 냉철하게 분석·비평했다.

이와함께 강 교수는 강남 좌파의 문제는 '이

념'보다는 '엘리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뉴욕대 정치학 교수 버나드 마빙의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새로운 엘리트의 부상과 다른 엘리트의 퇴조'일 뿐"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이는 마빙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남 좌파에서 '좌파'는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강 교수의 주장. 기존 엘리트 지배 체제를 당연시하면서 자꾸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 구도로 몰고 가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으며, '엘리트 대 비(非)엘리트'의 구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엘리트들의 '승자 독식주의'가 지속되는 한 대중은 늘 그들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2년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세대분석이자 인물비평이어서 더욱 생동감 있고 특별한 의미를 선사한다.

<인물과사상사·1만6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크고 작은 섬...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의 섬-전남 완도'

이재연 지음

전국의 556개 섬을 순례하며 '한국의 섬' 시리즈를 출간하는 사업에 팔리고 있는 이재연(목사·한국섬사랑회 총무)씨의 '한국의 섬-전남 완도'가 나왔다. 이번 책에서는 바다를 주름잡던 '해상왕' 장보고의 고향 완도와 그 섬을 다뤘다.

55개 유인도, 146개의 크고 작은 섬 이야기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육지와 연륙된 섬 장도·고금도·신



지도·약지도를 비롯해 완도항에서 청산페리를 타고 떠나는 청산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보길호를 타고 떠나는 남도 등 완도의 보석 같은 섬들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편은 역사와 문화, 해양자원이 풍부한 완도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게 구성했고, 아름다운 섬들을 제대로 여행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신경 썼다.

<아름다운사람들·2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체온조절력을 통해 면역력 키워라

'아토피 혁명'

박건 외 지음

양·한방 통합적 시각에서 아토피 치료법을 다룬 학술서 '아토피 혁명'(상·원리편, 중·치료편, 하·관리편)이 최근 출간됐다.

프리허그한의원 박건 원장과 열린 의학회 소속 양·한방의사들이 5년간의 임상실현, 2년간의 집필기간을 거쳐 완성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체온면역치료, 인간의 기본적인 면역체계를 이루는 체



온조절력을 통해 아토피 환자의 면역을 키워 새로운 피부를 돌아오게 하고,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학을 그대로 전한다. 책은 또 포유이나 스킨십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프리허그한의원은 '체온면역치료'와 함께 '학급치료'라는 집단치료를 병행해 아토피환자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치유하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빛나는 나무·3만7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류의 삶을 바꾼 위대한 발명과 발견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발명...'

로드니 P. 칼라일 지음

로드니 P. 칼라일 미국 러트거스대 명예교수가 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발명 발견대사전'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사의 중요한 발명과 발견 418가지를 시대별로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농업의 발전, 대수의 발명, 컴퓨터의 탄생과 같은 위대한 순간들의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 놓는다.

저자는 특히 과학과 기술의 역사를 여섯 가지 시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대별로 표제들을 나누어 기술함으로써 과학과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과학자의 일기, 동시대인의 발명품에 대한 논평 등 '당사자의 육성' 등을 발췌해 덧붙여 발명과 발견을 두고 최초로 감격해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책은 또 도표와 1차적 정보들을 표제항목 중간 중간에 배치했으며, 해당 인물과 과학자들의 주석을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인터넷 탐색으로 찾은 지식보다 폭넓고 값진 자료를 만날 수 있어 과학사 대사전이라 부르게 충분하다. <책보세·3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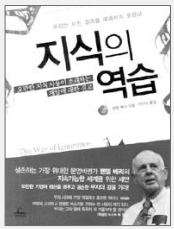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간

▲김대중을 생각한다=인터넷언론 프레시안에 각계 인사들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고하며 쓴 글과 인터뷰를 묶었다. 김근태 전 국회의원, 김두관 경남지사,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 브루스 커밍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두언 국회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함세웅 신부 등의 글이 수록됐다. <삼인·1만8000원>

▲지식의 역습=미국의 시인 겸 소설가, 사회평론가인 웬델 베리의 에세이집. 인류의 지적 능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인류의 지적 능력에 관한 믿음은 원초적인 미신에 불과하다며 '무지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무지의 길이란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와 효능을 제대로 알고 신중할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적절한 규모로 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창림출판·1만3000원>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참, 애매한 시간이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도, 그만 잊기에도, 중요한 시인의 열 번째 시집은 그 시간 사이에 있다. 자신의 인생 시간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쯤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솔직한 일상이 집시꽃 처럼 고운 시어에 담겨있다. 과거에 대한 잔잔한 회상과 대자연과 호흡을 나누며 살아가는 나 많은 시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창비·8000원>



▲아름다운 사람 루이 델랑드=평생을 한국과 한국인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루이 델랑드 신부의 일대기를 담은 평전. 1923년 한국에 온 델랑드 신부는 일제강점기 고통받고 있던 한국인들과 아픔을 함께했으며 무료진료소, 보육원, 양육원 등을 설립,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다. 어렵고 험준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델랑드 신부의 인생여정을 만날 수 있다. <미디어북스·1만8000원>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될 아까운 책=지난 10년간 출간된 책 가운데 값어치나 의의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거나 아예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묻혀 버린 양서를 발굴해 소개했다. 강수철 고려대 교수, 철학자 강신주, 영화 평론가 유나, 미술 칼럼니스트 손철주씨 등 각계 전문가가 46명이 문학, 인문, 사회, 경제·경영, 과학, 문화·예술 등 6개 분야로 나눠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지 못한 책들을 중심으로 총 48권의 '숨은 진주'를 선정했다. <부키·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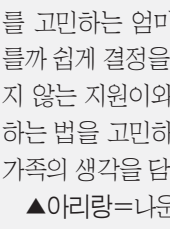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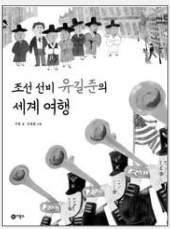
▲성난 타조=안광(51) 순천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유령사냥꾼' 이후 8년만에 내는 소설집. 타조농장을 운영하며 부를 꿈꾸는 부부를 통해 현대인의 욕망과 비극적 상황을 그린 '성난 타조'를 비롯해 '매지카드', '버팔로' 등 6편의 단편을 담았다. 일상에서 파생되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고통과 애환을 특유의 상상력과 탄탄한 구성으로 재현했다. <실천문학사·1만1000원>



▲빨간 풍선='소중한 것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그림책. 제발통은 애지중지하던 빨간 풍선을 잃어버리고 빨간 색만 보이던 그 중심인 줄 알고 달려든다. 그러다 풍선을 찾기위해 함께하는 올빼미 할머니, 비둘기들, 달팽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깨닫는다. <미래아이·9000원>

▲감할머니의 신동방통 이야기 보따리=학교 가기 싫은 아이,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 만화영화에만 푹 빠져 있는 아이 등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감할머니가 나타났다. 감할머니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면 아이들의 고민은 말끔히 해결된다. 감할머니의 구성진 입담이 웃음을 자아낸다. <시공주니어·9000원>

▲조선 선비 유길준의 세계 여행=조선이 미국에 보낸 첫 공식 사절단인 보빙사의 수행원이자 '서유견문'의 저자인 유길준의 미국 여행기이다. 유길준과 보빙사 일행은 1883년 보빙



사 일원으로 미국을 찾은 유길준은 2년간 남아 공부를 계속하다가 1885년에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 조선으로 돌아온다. 당시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조선과 조선 사람들이 바라본 서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비룡소·1만5000원>

▲먹는 이야기=아이들의 일상생활 속 생생한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표현한 '지인어와 병판어' 시리즈 제 7권. '똥 먹을까?'를 고민하는 엄마와 마트 과자코너에서 똥을 쉽게 결정 못 하는 병판어, 아재를 잘 먹지 않는 지인어와 이런 말을 위해 아재를 먹게 하는 병판어를 엮은 아재 등 먹는 것과 관련된 가족의 생각을 담았다. <길벗어린이·1만원>

▲아리랑=나문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각색한 그림책. 진도아리랑 등 한국을 대표적인 아리랑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요 아리랑의 악보와 가사가 실렸으며, 연극배우들이 녹음한 아리랑 구연동화와 아이들이 부른 아리랑 노래가 담긴 CD가 첨부돼 있다. <푸른숲주니어·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